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포괄적 음악교육의 지도방안 연구

- 중학교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소 민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포괄적 음악교육의 지도방안 연구

- 중학교 중심으로 -

김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소 민

인 준 서

김소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의 여러 활동을 좀 더 다양하게 경험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해서 전체적인 안목으로 사고하고 접근하는 포괄적 음악교육의 지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과 포괄적 음악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제재곡인 「페르 쿼트」 1, 2모음곡을 통해 7차시로 나누어 다중지능이론의 8가지 지능을 2가지 지능씩 각 곡에 적용시켜 실제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방안을 연구하였다.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감상 제재곡의 지도계획에서는 학생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페르 쿼트」를 선정하였다. 수업지도안에서는 「페르 쿼트」 1, 2모음곡을 통해 7차시로 나누어 각 곡의 음악적인 표현들을 연구하고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지도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총 8곡을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방안으로 연구하였다.

「페르 쿼트」 1모음곡의 ‘아침의 기분’은 공간적 지능과 자연 친화적 지능을, ‘오제의 죽음’은 인간 친화적 지능과 자기성찰적 지능을, 1, 2모음곡의 ‘아니트라’의 춤’과 ‘아라비아의 춤’에서는 신체 운동적 지능과 논리 수학적 지능을, ‘산신의 전당에서’는 음악적 지능과 언어적 지능을, 2모음곡의 ‘잉그리드의 탄식’은 공간적 지능과 음악적 지능을, ‘페르 쿼트의 귀향’에서는 자기 성찰적 지능과 인간 친화적 지능을, ‘솔베이그의 노래’에서는 언어적 지능과 자연 친화적 지능을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포괄적 음악교육의 지도방안이 효과적인 음악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현직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대해 본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3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선행연구	4
2. 포괄적 음악교육과 다중지능이론	6
3. 음악 감상지도의 필요성	9
4.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감상지도	10
5. 다중지능을 활용한 감상 활동	13
III.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감상 제재곡의 지도계획	16
1. 제재 선정 이유	16
2. 지도계획	17
3. 수업지도안	20
IV. 결론 및 제언	52

참고 문헌

ABSTRACT

- 부 록 -

표 목 차

<표 1> 중학교 감상부분 음악활동 구성	12
<표 2>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차시별 지도계획	18
<표 3> 각 주제별 순서에 등장하는 악기	24
<표 4> 학습지 예시	44
<표 5> 계획지 예시	47

그림 목차

<그림 1> 다양한 표정카드	25
<그림 2> 아라비아 의상 입은 모습	33
<그림 3> 모듈별 배치 그림	39
<그림 4> 교사의 예시 장면	39

악보목차

<악보 1> 주제 선율 악보	20
<악보 2> 목관악기의 짧은 트릴 마지막 부분	22
<악보 3> 주제 선율 악보	26
<악보 4> 주제 선율 악보	30
<악보 5> 주제A	31
<악보 6> 주제B	32
<악보 7> 주제 선율 악보	36
<악보 8> 형사가제트 주제 가락 악보	37
<악보 9> 주제 선율 악보	37
<악보 10> 바람돌이 소닉 주제가사와 악보	38
<악보 11> 신부를 약탈하는 1주제 선율	41
<악보 12> 잉그리드가 탄식하는 2주제 선율	41
<악보 13> 잉그리드가 통곡하는 절정 부분	41
<악보 14> 주제 선율 악보	44
<악보 15> ‘나이 서른에 우린’ 악보	46
<악보 16> 전주부분과 후주부분 악보	48
<악보 17> 1주제와 2주제 악보	49
<악보 18> ‘솔베이그의 노래’ 악보	5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 시대를 주도하는 자율적인 학습자를 요구하는 학습자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음악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습자 중심교육을 강조하며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뿐 아니라 음악을 다른 교과와의 연관성을 통해 이해한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경험을 강조한다. 학생은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 속에서 음악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며 그 속에서 보다 의미 있는 지식들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교사 역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높이고 폭넓은 수준의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 학습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로 최근에 통합교육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정을 다양한 맥락에서 접근하여 그 이해의 폭과 적용가능성을 넓히기 위한 접근으로서 교과를 구성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의미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영역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급증하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시대속에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학교에서의 경험이 사회의 일상생활과 연결되고 사회적 문제해결이나 새로운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넓은 안목을 길러주는 학습이 필요하다. 포괄적 음악교육이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악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음악교육의 목표는 음악을 통해서 정서를 순화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인간의 음악적인 성장을 통해 조화로운 인격을 갖게 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전일생애 걸쳐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기본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러나 음악을 듣는 활동은 다른 음악교육의 활동보다도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활동인데도 현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음악적 경험의 영역은 듣기, 연주, 창작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듣기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음악 감상은 연주활동과 창작활동의 기초가 되므로 중요하지만 듣는 것만 고집한다면 실증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표현한 악곡을 선택하여 감상하고 이야기 내용과 음향을 관련짓는 창작활동을 하며 음악에 관한 흥미를 유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흥미유발을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해하기 쉬운 음악극을 통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음악활동과 학습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음악의 여러 활동을 좀 더 다양하게 경험할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드너(Haward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해서 전체적인 안목으로 사고하고 접근하는 포괄적 음악교육 지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이 연구에서는 여러 문헌에 대한 연구방법으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대한 기본적 정의와 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다중지능이론의 8가지 영역을 통해 학습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제 수업에서 다중지능이론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페르 귄트」를 중학생 대상으로 단순한 감상수업지도가 아닌 다른 영역의 활동도 함께 함으로 다중지능이론의 각 지능별 요소를 적용시켜 학습자가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고 흥미 유발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4가지의 활동영역 중 감상과 창작 영역을 함께 적용하였다. 교육과정에서도 영역간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감상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창, 기악, 창작의 활동이 부족 할 수 있다. 다중지능이론을 각 지능별로 하나의 제재곡에 적용 하여서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포괄적 음악교육의 연구에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박지희(2008)¹⁾는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통해 8가지 지능영역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 능력을 고려하여 감상수업에 적용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지능영역을 적용함으로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생활화영역을 통해 음악교육의 역할이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삶 속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장미(2007)²⁾는 다중지능이론을 바탕으로 음악적 지능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지능을 동시에 개발하는 수업지도안을 만들었다. 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활동위주의 수업을 구성하고자 개별학습과 모둠별 학습을 감상 학습에 연결시켰다. 또한, 다중지능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 감상수업은 학생들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여 여러 지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음악적으로 생각하고 평가를 통한 반성도 함으로써 음악적 이해와 성장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오페라에 대한 인식을 변화

1) 박지희.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중학교 감상 수업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2) 정장미.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오페라 마술피리의 감상 지도안 개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2007.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명희(2006)³⁾은 다중지능이론을 수업 받은 중학생들의 대부분이 수업을 통해서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능력이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들과 과제,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수업활동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유발시키며 협동적 학습을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교사는 학습할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내용을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과 다중지능 수업을 교육개선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개인차를 존중해서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수업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학생의 다중지능분석을 통하여 좀 더 의미 있는 적응력과 잠재력의 발달을 추구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그에 따른 수업개선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인영(2003)⁴⁾은 학생 자신의 생각을 끌어내며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고 실생활 속의 경험과 관련을 지어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초점을 두었다. 또한, 효과적인 이론이 교과외 지식이나 경험을 재구성하여 음악적 지능과 다른 지능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음악교과 목표와 다양한 지능을 가진 학생들의 조화로운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우수한 지능에 근거하여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학생들의 지능 발달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지우(2002)⁵⁾는 미술수업에서의 중심은 교사가 아닌 학생이 주도적인 수

3) 김명희. “다중지능이론을 활용한 동시감상 수업 효과 분석”.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4) 김인영.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음악과 교수학습 지도방안 연구 -초등학교 4,5,6학년 중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5) 이지우. “고등학교 미술교육에서 아츠 프로필과 프로젝트 접근법의 활용방안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업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장기간의 평가를 위해 학생의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와 제작과정에서도 사고의 전환과 변화가 중심이 되므로 실제제작과정에서의 질적 향상이 어려웠던 현실적인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진정한 완성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극복하게 될 때에 가능한 것이고 미술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조력자인 교사가 전문성과 확고한 의지를 통한 끊임없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악수업을 개선하고 학습자들의 수업효과를 증진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이다. 이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음악수업에서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기대도 크게 부응하고 있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연구들은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인 8가지영역을 모두 접근했지만 음악의 활동 영역 중 한가지영역만을 사용한 수업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선행연구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다중지능이론의 8가지 지능영역과 음악의 활동 영역인 창작, 감상, 기악, 가창 중에서 2가지 영역 이상을 통합하여 좀 더 세부적인 연구를 할 것이다. 또한, 감상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이지만 교육과정에서 영역간 통합을 중시하고 있고 가드너도 통합적인 학습을 중시하므로 다른 영역과의 통합도 고려하고자 한다.

2. 포괄적 음악교육과 다중지능이론

다중지능 이론은 하워드 가드너(Haward Gardner, 1983)⁶⁾에 의해 처음 제

시된 개념으로 인간의 지능을 다원적으로 파악한 지능이론이다. 아동들의 능력과 적성, 필요, 흥미를 고려한 개개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통해 수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게 되며 다중지능이론에는 8가지의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째, 음악적 지능, 둘째, 신체 운동적 지능, 셋째, 논리 수학적 지능, 넷째, 언어적 지능, 다섯째, 공간적 지능, 여섯째, 인간 친화적 지능, 일곱째, 자기 성찰적 지능, 여덟째, 자연 친화적 지능 이다. 이 8가지의 지능을 가지고 가드너는 일반지능의 측면에서 모든 인간의 지능을 설명하기보다는 다양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나 목수, 음악가, 엔지니어, 사냥꾼, 건축가, 의사, 종교지도자, 농부 등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은 무엇이고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성인의 역할을 지원하는 정신능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였다. 가드너는 지능검사의 결과나 지능지수의 측면에서 정의하지 않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문화에서 가치 있는 것을 만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심리생물학적 잠재능력으로 지능을 정의하였다.⁶⁾ 즉, 지능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개발되고 표현되는 인간 두뇌의 고유한 능력인 것이다.

포괄적 음악교육의 개념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사고를 하듯이 음악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다. 음악교육의 목표는 음악을 통해서 정서를 순화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인간의 음악적인 성장을 통해 조화로운 인격을 갖게 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전 일생에 걸쳐 음악을 즐길 수 있

6) Howard Gardner는 발달심리학을 전공하고 1977년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보스턴 대학교에서 후기 박사연수를 받으며 피아제 인지발달이론과 두뇌기능연구에 몰두하게 되고 영재아동과 두뇌에 손상입은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게 되었다.

7) 민디 L.콘하버, 에드워드 가르시아 피에로스, 셸리A, 비네바,(2008),다중지능 학교사례, 교문사, p4-5.

도록 기본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음악활동은 학생에게 해방감을 주고 자발적으로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이러한 음악활동은 음악가를 양육하기 위한 활동이나 지도가 아니라 학생들의 유연한 감성과 감각의 싹을 자연스럽게 미적으로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일찍이 유아나 아동기에 필요한 풍부한 정서는 점차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음악활동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고 인간 형성에 필요한 자연스러운 감성과 표현발달 또한 음악활동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포괄적 음악교육은 학생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개념적, 통합적, 경험적, 창의적인 접근이 있다.

첫째, 음악학습에서의 개념적 접근이란 음악의 기본이 되는 요소를 배움으로써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방대한 지식들을 쉽게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길러준다. 즉, 음악의 개념과 구조 및 상호관계 등을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주는 수업방법이다.

둘째, 통합적 접근은 모든 음악에 적용되는 기본개념을 가르쳐야 하며 기본능력의 표현 뿐 아니라 악기 연주 및 감상 능력도 향상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즉, 어떠한 기본개념이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단지 노래만 부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기 연주나 신체적인 표현, 지휘나 작곡, 악곡분석, 악보읽기, 토의와 평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경험적 접근이란 교사가 중심이 되어 주입식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음악을 직접 경험하며 학습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쉬운 내용에서 점차적으로 어려운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탐색과 사고, 조작을 통하여 음악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넷째, 창의적 접근이란 음악의 구조와 흐름을 학생 스스로 파악하고 알게하

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음악을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작곡하는 것이다. 이 창의적 접근방법은 학생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학생중심의 경험적 접근도 가능하다.

이처럼 포괄적 음악이란 학생들이 작곡가나 연주가, 감상자, 학자로서의 역할을 그 수준에 맞게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음악성을 말한다. 이러한 음악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역할을 통한 포괄적인 음악적 경험을 강조하는 것으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

3. 음악 감상지도의 필요성

음악 감상이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이 가진 아름다움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며 또한 음악 감상은 모든 음악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에 감상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중학교에서 음악수업시간에는 제재곡을 통한 가창이나 다른 여러 음악적 활동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감상수업이다. 그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변성기로 인해 그 기간 동안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창위주의 수업이 힘들고 더 큰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사회인이 되어서도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아닌 감상자로 더 많은 음악을 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시간에서의 감상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감상 수업을 개선시키기 위한 음악교사의 책임과 부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풍부한 음악적 경험은 창의성과 균형 잡힌 정서를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갖추게 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반면에, 음악적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은 좋고 나쁜 음악을 구별해서 듣

기보다는 대중매체음악의 쏟아지는 홍수 속에서 청소년기에 꼭 들어보아야 할 클래식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만을 감상하게 되어 무분별하게 음악을 받아들인다. 만약 이대로 방치하면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음악적 판단력을 잃기 쉬울 뿐 아니라 정서 발달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음악 감상의 지도목표는 미적인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는 음악적인 여러 요소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작품의 구성과 연주, 음악양식의 시대적인 구분과 작곡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동시에 음악을 마음으로부터 즐길 수 있고 생활 속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음악성을 이끌어낸다. 즉, 사회 구성원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교양을 쌓고 풍부한 인격 형성을 위해 음악적 예술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의 교육적 입장에서도 음악 감상은 모든 음악을 표현 할 수 있는 감각축적의 기초가 된다.

이처럼, 음악 감상 교육은 학생들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능동적으로 음악을 즐기도록 생활화 할 수 있는 태도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사 역시 감상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상 수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음악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느낌과 생각, 여러 신체적인 반응들을 감상수업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음악에 대한 능동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다.

4.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감상지도

감상 학습 활동에서 중요시 되는 점은 학생들이 음악적 미적 가치를 경험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음악을 통해 경험될 수 있는 미적 가치는 음악의 구성 요소들을 통해 조직되며 미적 가치를 경험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학생들이 미적가치를 경험하는 음악을 감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악의 개별성과 총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감지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교사는 음악에 대한 가치관, 애호심을 언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닌 학생 스스로 음악을 통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⁸⁾

기존의 7차 교육과정 내용체계는 이해영역과 활동영역으로 나뉘었다. 활동 영역은 가창과 기악, 창작, 감상의 4개 영역으로 나뉘어 감상은 독립적인 활동영역으로 분리되었다. 대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생활화 영역을 강조한 활동과 이해, 생활화 영역의 3영역으로 구분되며 감상은 활동 영역에 포함되도록 제시했다. 활동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해는 음악 개념, 악기, 악곡, 음악사,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 등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화 영역은 학교 내외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각 학년별로 제시되어 있다. 즉, 활동영역을 이해 앞부분에 제시함으로써 음악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활동 내용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음악 감상의 교육은 모든 세부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포괄적인 활동으로 활동영역의 음악 감상하기는 음악의 표현 및 요소와 음 현상에 대한 감지력, 민감한 반응력을 길러 궁극적으로 심미적 감수성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학교의 감상부분 음악활동구성은 학년별로 제시된다(표 1).

8) 교육인적자원부(2008),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서, p.166.

<표 1> 중학교 감상부분 음악활동 구성9)

영역	7학년	8학년	9학년
활동	<p>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재구성하기</p> <p>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만들기</p> <p>악곡에서 반복, 변화하는 부분 구별하며 감상하기</p> <p>여러 시대의 음악비교하며 감상하기</p> <p>바른 태도로 감상하기</p>	<p>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재구성하기</p> <p>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만들기</p> <p>악곡의 형식적 요소 파악하며 감상하기</p> <p>여러 지역의 음악비교하며 감상하기</p> <p>바른태도로 감상하기</p>	<p>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재구성하기</p> <p>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만들기</p> <p>악곡의 내용과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며 감상하기</p> <p>여러 문화권의 음악비교하며 감상하기</p>
이해	<p>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p> <p>여러 가지 악기의종류와음색</p> <p>악곡의 특징(시조, 판소리, 창극, 오페라, 뮤지컬 등)</p> <p>악곡의 종류(시조, 가곡, 단가, 판소리 등의 우리나라 성악곡과 예술가곡, 아리아 등의 외국 성악곡, 산조, 시나위 등의 우리나라 기악곡과 소나타, 푸가 등의 외국 기악곡 등)</p>	<p>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p> <p>형식(톤도, 소나타 형식, 연음방식)</p> <p>여러 가지 악기의 종류와 음색</p> <p>악곡의 특징(시나위, 수제천, 예술가곡, 교향곡 등)</p> <p>연주형태에 따른 악곡의 종류(독창곡, 중창곡, 합창곡, 독주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병주곡, 합주곡 등)</p>	<p>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p> <p>형식(주제와 변주, 푸가, 확대형식)</p> <p>시대에 따른 악곡의 종류(근. 현대 국악, 공통 관습 시대의 음악, 현대 음악 등)</p>
생활화	<p>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p> <p>우리음악의 가치인식하기</p> <p>학교내외의 음악행사에 참여하기</p> <p>학교내외에서 음악발표하기</p> <p>생활 속에서 음악활용하기</p> <p>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탐구하기</p>		

2007개정 교육과정 활동 영역에 구성된 감상하기를 중심으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적용을 통해 이해영역과 생활화 영역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실제적인 학습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9) 교육인적자원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p.19~20.

5. 다중지능을 활용한 감상 활동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모든 학생들은 최소한 한 가지 우수한 지능을 갖고 있으며 그 지능을 적절히 이용하여 가르치면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중지능이론을 통한 음악교육은 주입식이 아닌 흥미유발과 음악적 성장을 돕는 음악체험의 교육이 되며 음악성을 계발하고 나아가 조화로운 인격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중지능을 활용한 교수 활동을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적 지능에서의 감상활동은 음악 감상 시 할 수 있는 모든 이론적인 구성과 감상곡에 관련된 여러 음악적인 활동들을 적용할 수 있다. 즉, 학습 주제와 맞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학습 내용에 따라 개념이나 유형, 도식 등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 노래나 랩, 리듬치기, 창의적으로 리듬형태를 바꾸는 등 수업내용에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소리로부터 만들어지는 의미를 창조하고 소통,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언어적 지능은 8가지 지능 중에서 학생들에게 개발시키기 가장 쉬운 지능으로 학습 내용에 따라 여러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시나 일기 등을 통한 글짓기와 이야기를 꾸며서 말하는 등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 내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여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 집중시킨다. 예를 들면, 감상곡에 대한 시대와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해 작곡가나 음악가의 생애와 함께 감상 음악의 종류와 양식을 설명하여 표현능력에 대한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셋째, 논리 수학적 지능은 추상적인 관계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능력이다. 감상활동을 통해 학습할 내용에 적절한 감상곡의 전반적인 요소를 통하여 음악의 반복과 여러 음색, 조성과 다양한 형식, 선율 등을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다. 교사는 수업 때 감상할 때에는 집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직접 들음으로써 정확한 개념 파악을 통해 학생의 이해도에 효과가 있다.

넷째, 신체 운동적 지능은 오페라나 표제음악 등의 여러 장르에 음악을 감상했을 때 자신의 느낌이나 음높이에 따른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 즉, 감상 후에 음악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통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악기를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제작하거나 손들기와 같이 신체동작으로 표현하기, 학습할 내용을 극대화 시켜 모듈별 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연출하거나 역할놀이나 짧은 음악통화나 극을 통해 연극하기, 어떤 개념이나 말을 언어로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몸짓이나 마임을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 몸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여러 활동을 통해 적용시킬 수 있다.

다섯 째, 공간적 지능은 시각적, 공간적인 정보를 지각하고 이 정보를 기억으로부터 재창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감상곡에 관한 이야기나 시, 그림 등을 학생들이 감상하는 동안 음악적 내용과 연결시켜 상상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마인드맵 작성이 있다. 수업 때에 학습하는 내용을 어떠한 사물이나 생각을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내는 그림이나 은유법, 학습내용의 요점이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나 심상(image)으로 간략하게 표현해 본다.¹⁰⁾이 지능은 음악과 관련된 주제와 사물을 학생들이 실제로 그릴 수 있어서 곡에 대한 파악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섯 째, 인간 친화적 지능은 집단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능으로 감상수업 후 수업 시에 감상곡의 주제를 여러 악기로 연주 할 수 있는 앙상블이나 합창들을 적용시킬 수 있다. 또한, 음

10) 민디 L.외 4명(2008), 다중지능 학교사례, 교문사, p.6~7.

악작품에 대한 정보를 모듈별로 구성하여 조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전통적인 경쟁 분위기보다는 집단 학습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은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을 보살피 주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효과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래 학생들의 관계형성이나 사회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대인관계형성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곱 째, 자기 성찰적 지능은 감상음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관하여 설명하고 분석도 가능하다. 이 지능이 지나치게 발달한 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공포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만큼 학생들은 자율적인 존재로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고 각 학생의 개성을 신장시키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¹¹⁾ 즉, 감상곡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모든 생각이나 내용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여 문제에 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덟 째, 자연친화적 지능은 감상곡과 관련되는 계절이나 동물, 식물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음악과 연관 지을 수 있고 특징을 탐구, 파악하여 음악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자연과 더불어 일상에서 음악의 소리를 찾을 수 있으며 자연과 관련된 사람의 소리나 특징을 인식할 수 있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11) 박효정 외(2006), 다중지능이론과 수업, 양서원, p.40~43.

Ⅲ.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감상 제재곡의 지도계획

표제음악인 그리그 「페르 킨트」 모음곡은 헨리 입센의 시에 곡을 붙인 부수음악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긴 세월을 방황한 페르 킨트라는 젊은이가 훗날 사랑하는 여인에 의해 영혼을 구원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전체 5막으로 구성되어 여러 가지 모험과 상상을 통해 흥미있게 그려지고 있다.

그리그는 이야기의 상황과 전개, 인물의 성격을 좀 더 세밀하게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곡들을 계속 수정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1888년 전체 23곡 중 4곡을 선정하여 제1모음곡을 만들고, 1892 ~ 1893년에 다시 4곡을 선정하여 제2모음곡을 편성하였다. 「페르 킨트」 모음곡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연주회에서도 연주되고 있고 각종 영화나 광고, 드라마 등의 배경음악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유명한 곡이다.

1. 제재 선정 이유

음악과 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음악과 교육은 다양한 악곡을 경험하여 음악 개념을 이해하고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 음악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길러 음악에 대한 심미적인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게 하는 교과로 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른 예술과의 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다. 즉, 문학과 음악을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제재곡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강조하는 8가지의 다양한 지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음악 수업을 이끄는 데 「페르 쿼트」가 적합한 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잘 알려진 여러 곡들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흥미로운 표제음악 중에서 이야기가 있는 음악인 모음곡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페르 쿼트」 모음곡을 제재곡으로 선정하였다.

2. 지도계획

“악곡의 성격과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며 듣는다.”는 교육과정 감상영역부분에 있는 내용으로 악곡의 성격에 따른 감상활동은 중요하다. 따라서, 각 곡의 성격에 따라 8가지 지능을 두 지능씩 각 곡에 적용시켜 지도계획을 작성하였다(표 2).

<표 2>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차시별 지도계획

차시	중점 곡명	교수- 학습 목표	다중지능이론 적용
1	「1모음곡」 아침의 기분	1. 각 주제별 연주악기를 이해할 수 있다. 2. ‘아침의 기분’이란 주제를 가지고 신체 표현을 통해 곡의 음악적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다.	공간적 지능 자연 친화적 지능
2	「1모음곡」 오제의 죽음	1. 여러 장송행진곡을 들어보고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2. 간단한 음악극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	인간 친화적 지능 자기 성찰적 지능
3	「1모음곡」 아니트라 의 춤 「2모음곡」 아라비아 의 춤	1. 영상을 통해 감상한다. 2. 신체표현을 통해 춤동작을 익히면서 리듬(박자)을 이해할 수 있다. 3. 모듈별로 간단한 춤동작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신체 운동적 지능 논리 수학적 지능
4	「1모음곡」 산신의 전당에서	1. 주제선율을 듣고 다른 감상곡에서 비슷한 주제를 감상할 수 있다.	음악적 지능 언어적 지능
5	「2모음곡」 잉그리드의 탄식	1. 제재곡을 듣고 어울리는 그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도 발표한다. 2. 선택된 그림을 보고 다양한 음악 중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택 할 수 있다.	공간적 지능 음악적 지능
6	「2모음곡」 페르킨트의 귀향	1. 페르킨트의 귀향을 듣고 30살의 모습을 계획지에 작성할 수 있다. 2. ‘나이 서른에 우린’이란 곡을 가창한 후 모듈별로 30살의 모습도 상상하며 발표할 수 있다.	자기 성찰적 지능 인간 친화적 지능
7	「2모음곡」 솔베이그의 노래	1. 음악에 맞춰 낭송해보고 주제선율에 가사를 붙여본다. 2. 자신이 솔베이그가 되어 일기나 편지를 써본다.	언어적 지능 자연 친화적 지능

제1 모음곡의 배열은 전통적인 소나타 악장의 배열과 비슷하여 알레그로, 안단테, 무곡, 행진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악장의 균형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졌다. 이 모음곡의 첫 곡은 노르웨이의 아침을 연상시키는 ‘아침의 기분’으로 이 곡의 찬란한 시작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 2모음곡은 1892년에 「페르 퀴트」 음악의 나머지 곡들 중에서 4곡을 선별하여 만들었으나, 1893년에 ‘산왕의 딸의 춤’을 제외시키고 ‘아라비아의 춤’으로 바꿨다. ‘산왕의 딸의 춤’은 인간의 춤이 아니라 트롤의 춤으로 트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냉정하였으며 내용상으로는 극장에서 연주되지만 콘서트에서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결국 제외시키게 되었다.

3. 수업지도안

1) 페르 쿤트 제 1모음곡 - ‘아침의 기분’

(1) 음악적 표현 연구

제 4막의 처음을 장식하는 전주곡이며 아프리카 모로코 해안의 해질녘 모습의 배경을 시작으로 연주된다. 페르 쿤트라는 주인공이 아프리카로 떠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다는 내용의 시작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용한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 노르웨이 해안의 아침을 묘사한 곡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느낌을 준다. 밝고 전원적이고 희망찬 시작의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음곡의 첫 번째 곡으로 선정되었다.

이 곡은 마장조, 6/8박자로 “Allegretto pastorale”의 느낌으로 연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pastorale”는 ‘목가적으로, 전원풍으로’의 의미를 가지며 경쾌한 목가풍의 평화로운 곡이다(악보 1).

<악보 1> 주제 선율 악보

아침의 기분

Allegretto pastorale

p

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제 선율(악보 1)은 동형진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음계적 성격이 강한 주제선율은 민요적인 느낌을 첨가하여 노르웨이 새벽녘을 연상할 수 있다. 또한, 6/8박자의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박 계통의 6/8박자의 부드러운 강약에 담은 선율은 바다가 물결치는 모습을 표현한다.

<악보 1>에 나타나는 주제선율은 플롯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이 플롯의 음색으로 연주되는 주제는 바다 저 건너로 떠오르는 태양을 연상한다. 주제를 바로 오보에가 받으면서 오보에의 음색과 5음 음계적인 가락이 서로 어우러져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처음 마장조로 시작된 주제는 장3도 위로 전조되면서 반복되고, 다시 단3도 위인 나장조로 잠시 전조된다. 나장조는 원조와 관계조이며, 다시 원조로의 복귀의미를 갖고 있다. 두 악기가 서로 대화를 주고 받고 오케스트라 전체가 연주되면서 현악기가 원조인 마장조로 주제를 웅장하게 연주한다. 지평선 너머로 구름사이에 태양이 찬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아침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리그는 이 부분에 대해 ‘나는 이곡의 첫 번째 포르테에서 태양이 구름을 헤치는 모습을 상상한다.’라고 썼다.

c# 단조에서 b♭ 단조로 전조되는 첼로의 어두운 느낌의 변형된 주제가 연주된다. 그러나, 곧 구름은 걷히고 다시 눈부신 주제의 음악으로 돌아온다. 여기서 첼로의 멜로디 처음부분인 G -F#-E-F#-G 는 제2모음곡 3번째 곡인 ‘페르 귄트의 귀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두 곡 모두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곡으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 부분으로 가기 전에 플롯과 오보에 등 목관악기의 짧은 트릴로 아침을 알리는 새들의 지저귀음을 표현한다(악보 2).

<악보 2> 목관악기의 짧은 트릴 마지막 부분



<악보 2>에 제시된 후반부에 지저귀는 새소리를 표현한 뒤 조용한 아침을 묘사한다. 새벽에 해안의 이미지를 희망과 시작이란 심적 이미지와 연결시켜 표현하고 있다.

이 곡은 사실상 사막의 새벽에서 아침의 해가 뜨는 광경을 묘사하는 서주 음악이었으나, 음악의 특징상 바다를 묘사하는 음악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해지기 전에 모로코 해안에서 페르 쿤트와 그의 대규모 사업상의 친구들이 익살스런 대화를 하는 첫 장면 전에 연주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그가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모로코 해안의 일몰이나 사막의 일출 같은 걸로 보이는 것이 아닌 각박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던 페르 쿤트의 마음속에 소중한 간직되어 있는 고향 노르웨이 산맥에서의 아침 풍경을 노래했다. 모험을 좋아하고 방랑벽이 있는 페르 쿤트이지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한, 앞으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2) 지도내용 및 방법

“아침의 기분”에서는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인 8지능 중에서 공간적 지능과 자연 친화적 지능을 포함하였다. 여기서 공간적 지능은 감상곡에 관한 이야기나 시, 그림 등의 음악적 내용을 통해 상상하면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거나 마인드맵 작성을 할 수 있고 음악과 관련된 주제와 사물을 학생들이 실제로 그릴 수 있어서 곡에 대한 파악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자연친화적 지능은 감상곡과 관련된 계절과 동물, 식물 등을 통해서 직접 음악과 연관시킬 수 있고 자연과 관련된 사람의 소리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접근이 가능하다.

먼저 제목이 “아침의 기분”이므로 ‘아침은 어떤 모습인가’, ‘아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 모둠별로 관찰을 해서 영상으로 수집을 하는 과제를 전 시간에 미리 내주어 학생들에게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해가 진행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을 수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모습을, 바다가 파도칠 때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모습도 영상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바쁘게 출근하는 도시의 모습도 가능하고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등 모두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아침의 기분”이란 주제에 맞게 할 것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활동영역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을 재구성하기”라는 부분이 있다. 즉, 다양한 시청각 기기들을 활용하여 기존의 음악을 조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의도에 따라 기존의 음악을 재구성한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이야기나 장면 등을 주고, 이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선곡하도록 한 후, 다양한 기기들을 활용하여 재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별, 모둠별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음악적인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

도록 지도한다.¹²⁾

둘째, 각 주제별로 등장하는 악기들을 학생들이 감상하는 중에 표로 작성된 그림을 보여준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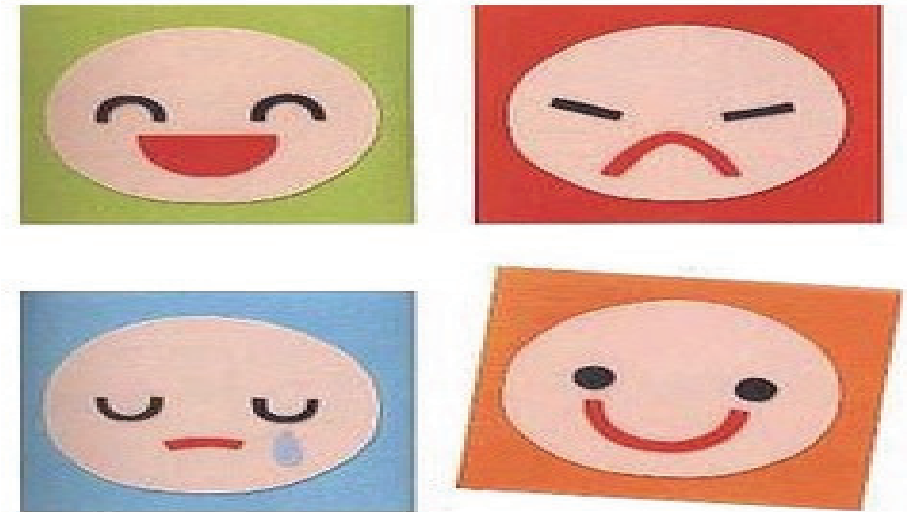
<표 3> 각 주제별 순서에 등장하는 악기

순서	등장 악기	순서	등장 악기
주제 1	플룻	단조 부분	첼로
2	오보에	8	호른
3	플룻	9	파곳, 오보에
4	오보에	10	현악기
5	플룻, 오보에	후반 새소리 부분	플룻, 오보에
6, 7	현악기를 중심으로 한 오케스트라 전체	11	플룻, 파곳

<표 3>에 나타난 각 주제별로 나오는 악기 이름과 그 소리의 음색을 듣게 되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각 악기음색의 차이점과 그로 인한 느낌차이를 감상하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표정카드나 악기소리와 비슷한 자연의 소리에 관해 생각하고, 의성어를 통해 모듬별로 표현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같은 음악을 들어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첼로의 소리는 저음악기로 굵고 낮은 소리이기 때문에 모듬별로 ‘눈을 감고 있는 표정카드’이거나 굵은 목소리로 흥내를 낼 수도 있고 자연과 비슷한 소리를 찾아서 새소리나 바람, 번개 등 자연환경과 동·식물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12) 2007년 개정 음악 교육과정해설, 교육 과학 기술부, p.28.

셋째, 다양한 표정이 담긴 카드를 음악을 감상하면서 표현해보는 것이다. 먼저 학생들이 음악을 감상하면서 모뎀별로 표정카드를 제작을 한다(그림 1).



<그림 1> 다양한 표정카드

음악을 감상하면서 모뎀별로 앉아 음악에 어울리는 카드를 <그림 1>과 같이 만들어보는 학습을 해본다. 반대로, 감상을 하면서 모뎀별로 이미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담은 다양한 표정카드를 만들 수 있다.

2) 페르 퀴트 제 1모음곡 - '오제의 죽음'

(1) 음악적 표현연구

오제는 페르 퀴트의 어머니인데 그녀가 숨을 거두는 장면의 음악이다. 느리고 비통한 연주로 산에서 돌아온 페르퀴트가 죽음을 눈앞에 둔 어머니를 지켜보는 아주 슬프고 엄숙한 분위기의 곡이다.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느낌으로 알아차리고 있지만 오히려 즐거운 상상을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페르 퀴트의 모습은 그의 독특한 현실 도피 모습을 예리한 대조적 구조로 설정했다. 활기 넘치는 대화와 오제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음악으로 음악만 들을 때보다 실제 극중에서 더 큰 효과를 보여준다.

작은 소리로 시작하여 점점 그 소리가 커짐으로써 비극적인 분위기를 점차 강조시킨다. 이 곡은 나단조로 4/4박자이며 장송음악들 중 대표곡이라 할 수 있다(악보 3).

<악보 3> 주제 선율 악보

페르퀴트

오제의 죽음

느리게 진행되는 빠르기, 단조의 조성이 주는 효과 뿐만 아니라 연주악기가 모두 현악기인 점도 효과가 더 크다. 곡을 연주하는 악기는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등의 현악기로써 제박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씩 끄는 현의 느낌이 마치 죽음에 임박해서 그동안의 삶을 회고하고 되돌아보는 오제의 마음처럼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 쓸쓸하고 고독하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2) 지도내용 및 방법

“오제의 죽음”은 가드너의 8가지 지능 중에 인간 친화적 지능과 자기 성찰적 지능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 친화적 지능은 감상수업 후 감상곡에 따른 주제를 악기를 통해 연주 할 수 있는 앙상블이나 합창들을 적용시킬 수 있으며 음악작품에 대한 정보를 모듈별로 구성하여 조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영역이다. 즉, 학생들이 모듈별 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대인관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자기 성찰적 지능은 감상곡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여러 생각이나 내용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여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들을 수업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 곡을 이해하기 전에 다른 여러 장송행진곡이나 레퀴엠 등의 의식음악도 함께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송 행진곡은 성격적으로도 슬픈 분위기와 가라앉는 리듬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지도할 때에 장송행진곡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언제 연주되는지를 알려줌으로 학생들이 이 곡을 더 진지하게 듣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장송행진곡들로는 베토벤의 <제 3교향곡>중 2악장,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op.35)>의 제 2번 중 3악장, 바그너의 <지그프리트의 장송행진곡>, 말러의 <제1교향곡> 중 3악장 등이 있다. 이 곡들은 특정한 장례식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장례의 분위기를 표현한 것인데 오늘날에는 실제 장례식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장송행진곡들을 학생들에게 참고곡으로 들려줌으로써 생활 속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장송행진곡들을 다 들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한된 수업시간을 생각하여 “오제의 죽음”과 제시된 여러 장송행진곡들을 비교하여 들어볼 때, 각 곡의 특징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들으면서 그 느낌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과 내용을 고려하여 이 참고곡 중 한 곡만 선정하여 들려주는 것도 수업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둘째, 이 곡을 감상하면서 느린 속도로 걸어보고 감상곡의 속도와 느낌을 직접 경험해 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예를 들면, ‘슬프고 장중한 느낌, 음 하나하나가 테누토 하듯이 천천히 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와 같이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셋째, 학생들에게 이 곡을 통해서 현장 체험인 ‘무덤 체험’ 과 ‘유서’를 써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유서’를 쓸 때는 모둠별로 하되 각 조원들의 느낌과 생각을 통해 글로써 표현해본다. 여러 장송 행진곡과 레퀴엠을 들어보고 죽음과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면 현장체험인 ‘무덤 체험’과 ‘유서’를 직접 체험하며 써 보면,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 곡을 주제로 ‘무덤 체험’과 ‘유서’를 학생들이 활동해봄으로써 각자의 삶을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갖게 유도한다. 학생들에게 직접체험은 현장체험이 바람직하겠으나 학교의 실정과 교실의 상황에 따라 교실에서 체험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무덤 체험’과 ‘유서’를 쓰는

것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생활화 영역부분에 있는 “생활 속에서 음악 활용하기”에 속한다. 수업시간에 배운 “오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통해 음악적 지식과 기능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오제의 죽음”이 갖는 깊은 슬픔의 의미를 더 확실히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황제의 딸과 옷을 우연히 얻어 입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베드윈족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라고 믿게 된다. 베드윈족 추장은 그를 자신의 천막으로 데려가고 페르 쿤트를 위해 벌어진 연회에서 아름다운 베드윈족의 소녀들이 춤을 춘다. 그 소녀들 사이에서 추장의 딸 아니트라가 등장하여 페르 쿤트의 마음을 더욱 더 사로잡고 있다. 경쾌한 활기를 띤 춤곡으로서 동양의 이국적인 매력에 반하는 페르 쿤트의 심리를 잘 묘사하였다.¹³⁾ 그는 예언자처럼 가장하고 춤을 보고 있다. 아라비아의 아름다운 소녀들은 “예언자가 나타났으니 플루트와 탬버린이여, 기뻐 소리를 외쳐라” 하면서 합창하며 춤을 추는 것이다. 페르 쿤트의 2개 모음곡에서는 소녀들을 상징하는 음악과 아니트라를 상징하는 음악이 나타난다.

4/4박자의 다장조 곡으로 “Allegretto vivace”로 빠르고 생기있게 연주된다. 아라비아 소녀들을 상징하는 음악인 ‘주제A(악보 5)’와 아니트라를 상징하는 음악인 ‘주제B(악보 6)’로 나타난다.

<악보 5> 주제A



13) 이해영(2007), 「감상과 창작의 통합적 수업방안연구:그리그 페르 쿤트 모음곡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재인용.

<악보 6> 주제B



먼저 ‘주제 A(악보 5)’부분이 무곡의 시작을 알리는 쾌활한 선율로 진행된다. 동양적인 춤곡의 시작을 새가 지저귀는 귀여운 음색인 피콜로와 트라이앵글로 시작한다. 타악기의 소리에 맞춰 쾌활하게 등장하는 이 선율은 피콜로의 높은 음역과 짧은 스타카토의 표현, 그리고, 트라이앵글의 반짝이는 음색과 어우러져 아라비아 소녀들의 경쾌한 발걸음과 등장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며 아라비아의 정서를 그렸다. 매우 씩씩한 행진곡풍이다.

(2) 지도내용 및 방법

제 1모음곡과 제 2모음곡에 나타난 “아니트라 춤”과 “아라비아 춤”은 가드너의 8가지 지능 중에서 신체 운동적 지능과 논리 수학적 지능에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신체 운동적 지능은 여러 장르의 음악을 감상했을 때 자신의 느낌이나 음높이에 따른 표현을 신체를 통해 춤과 같은 여러 활동을 적용시킬 수 있고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타악기를 만들어 보고, 주제선율에 맞게 연주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논리 수학적 지능은 감상곡의 전반적인 요소와 관련하여 음악의 반복이나 음색, 조성, 형식, 선율 등을 비교하고 대비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활동으로 감상시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직접 들음으로써 정확한 개념 파악과 학생의 이해도에 효과가 있다.

“아니트라 춤”과 “아라비아의 춤” 음악을 들으면서 교사가 곡에 대한 설명을 한다. 학생들에게 아라비아의 천일야화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라비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아라비아 여인의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 이야기로 들려주게 되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아라비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아라비아의 춤”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서 ‘모르지아나’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도적의 두목 앞에서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온다. 학생들에게 동기유발의 자료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당시의 모르지아나의 춤을 연상 한다면 춤을 추는 목적은 다르지만 ‘아라비아의 춤’과 ‘아니트라 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야기에 관한 간단한 자료인 의상이나 사진, 그림 동영상 등이 준비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실제로 학생들이 간단하게 긴 천이나 수건 등을 이용하여 아라비아 의상을 입어보는 활동을 하는 것도 곡의 느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그림 2).



<그림 2> 아라비아 의상 입은 모습

둘째, 곡의 전체적인 느낌을 통해 리듬(박자)에 맞추어 신체표현을 한다. 춤동작도 익혀봄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악기별로 특징 부분을 편집하여 모듬별 활동으로 율동을 짠 다음 음악을 편집하도록 활동을 해본다. 음악을 편집하는 것은 악기의 음색과 반주 리듬, 클라이막스를 혼합하여 모듬별로 다양하게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도 대회 때 쓰이는 음악들을 통해 여러 다양한 춤 동작을 짜서 하는 것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볼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간단한 리듬을 표현할 수 있는 타악기를 모듬별로 만들어 본다. 예를 들면, 큰북이나 작은북, 마카라스 등의 악기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컵, 요쿠르트병, 우유통, 플라스틱통, 깡통, 콩, 나무젓가락, 조약돌 등-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교사는 미리 만들어 놓은 재활용품 리듬악기나 타악기를 보여준다. 음악에 맞추어 춤동작을 익힌 후에 모듬별로 각자 만든 타악기와 함께 표현해본다면, 곡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신체적인 변화와 사춘기를 겪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과정이 어렵다. 따라서, 음악의 분위기에 맞게 자신을 잘 표현하는 김연아 선수를 예를 들어 설명 한다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모듬별로 활동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는 각 모듬별로 학급발표시간을 갖도록 하여 음악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함을 감상해보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짐으로써 음악을 생활화하고 공동체적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음악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긍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격려와 칭찬을 통해 자신이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소중한 체험이 될 것이다.

4) 페르 퀴트 제 1모음곡 - ‘산신의 전당에서’

(1) 음악적 표현연구

이 곡은 나단조로 4/4박자이며 페르 퀴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곡 중의 하나다. 제2막 산왕의 궁전 장면인데 막이 오르기 전부터 연주되는 행진곡으로 페르 퀴트가 마왕의 딸을 냉대했기 때문에 노한 마왕이 부하들한테 페르 퀴트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마왕의 부하들이 춤추면서 날떨 때, 또 동굴에 사는 마왕들의 부하인 요괴들에게 쫓기는 페르 퀴트의 절박한 상황을 묘사한 곡이다. 트롤들에게 뒤쫓기는 페르 퀴트의 절박한 장면, 클라이막스에 이르러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큰 폭음이 일어나면서 요괴들이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사라져버리는 광경 등을 잘 묘사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그는 「페르 퀴트」를 음악으로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난감해할 때 “산신의 전당에서”의 장면은 이야기의 특성상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 장면에서 평소와는 다른 자신의 음악스타일과 음악적 표현에 대해 “제2막에 나오는 ‘트롤들의 동굴’ 장면은 정말이지 나로선 참고 들어줄 수 없을 정도라네. 그것은 마치 쇠똥의 악취, 노르웨이인 특유의 편협함과 자만심처럼 나를 불쾌하게 한다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그 이면에 도사린 아이러니를 감지할 수 있으리라 믿네.”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곡 전체에 ‘주제 선율 악보(악보 7)’과 같이 주제가 오스티나토처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제시가 되고 있다.

<악보 7> 주제 선율 악보

<산신의 전당에서>

그리그 작곡

Alla marcia e molto marcato



<악보 7>에 제시된 주제를 보면 “Alla marcia e molto marcato”라는 용어로 명시되어 있다. ‘행진곡풍으로, 하나하나의 음을 명확히’라는 의미로 행진곡풍의 리듬을 실어 한음씩 또박또박 짚어나가는 이 주제는 페르퀀트와 요괴들의 비밀스럽고 또한, 바쁜 발걸음을 적절하게 표현한다.

전체를 통해 계속 반복되는 주제는 점차 악기 수를 늘리면서 음량이 커지는 것을 감상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페르 퀀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산왕의 부하들과 궁지에 몰린 페르 퀀트’라는 절박한 극적인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강세와 빠르기가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되어지는 특이한 방법의 곡 구성의 아이디어는 나중에 라벨의 <볼레로>와 오네게르의 <기관차 패시픽 231>등에 사용되기도 했다.¹⁴⁾

2) 지도내용 및 방법

“산신의 전당에서”는 가드너의 지능 중에서 음악적 지능과 언어적 지능을 적용해 보았다. 여기서 음악적 지능은 감상활동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이론적인 구성과 음악적인 활동들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언어적 지능은 음악에 대

14) 이기쁨(2007), 「페르퀀트모음곡 감상수업을 위한 지도방법연구 : 고등학교감상수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재인용.

한 주된 주제가락을 통해 창의적으로 가락 짓기 등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 내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먼저 “산신의 전당에서”의 주제선율을 들려 준 뒤 비슷한 주제선율을 갖고 있는 만화영화 주제가들을 몇 곡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들려준다. “형사 가제트” 주제가와 “바람돌이 소닉”주제가, “톰과 제리” 등의 곡을 선정할 수 있다. 이 세곡 모두 학생들에게 매우 친숙한 곡이며 “형사 가제트”는 주제가락이 ‘산신의 전당에서’의 주제가락과 매우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악보 8> 과 <악보 9>를 통해 볼 수 있다.

<악보 8> 형사가제트 주제 가락 악보



<악보 9> 주제 선율 악보

<산신의 전당에서>

그리그 작곡

Alla marcia e molto marcato



또한, “바람돌이 소닉”주제가는 ‘산신의 전당에서’의 주제가락이 그대로 사용되어 가사를 붙인 상태로 노래 불린다. “바람돌이 소닉”이라는 주인공의 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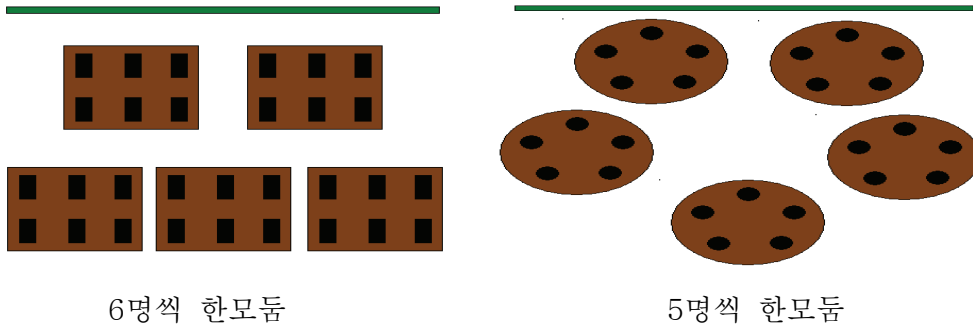
릭터와 쫓고 쫓기는 만화의 내용이 감상곡의 주제가락과 잘 어우러져 긴장감과 흥미를 더 한 곡이라 할 수 있다.

<악보 10> 바람들이 소닉 주제가사와 악보



이러한 만화 영화 주제를 듣고 난 후에 감상곡을 듣게 된다면 곡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가 증대되고 그 주제가락을 기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 만화 주제를 들으며 학생들의 흥미를 강하게 유발시킬 수 있으며 만화 주제가와 비슷한 선율진행을 하는 ‘산신의 전당에서’도 호기심을 갖고 집중하며 들을 수 있다.

둘째, 학생들에게 “툼과 제리”도 서로 쫓고 쫓기는 만화의 내용이 감상곡의 내용과 비슷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쉬운 예시 중 하나이다. “툼과 제리”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모듈별로 이야기 꾸미기(글짓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예를 들면, 한반에 30명일 때 6명씩 한 모듈이면, 다섯 모듈로 나눌 수 있고 5명을 한 모듈으로 한다면 여섯 모듈로 나눌 수 있다(그림 3).



<그림 3> 모듈별 배치 그림

두도막 형식(16마디)이 되도록 다섯 줄 이내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 줄에 4마디씩 가사가 만들어지도록 지도한다. 가사를 붙여서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교사가 예시로 ‘산신의 전당에서’의 주제 선율에 페르 권트 이야기와 관련된 쫓기는 내용의 가사를 4마디에 짝맞하게 붙여 학생들과 불러본다면 어렵지 않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4).



<그림 4> 교사의 예시 장면

모듈별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난 후, 각 모듈별로 이야기를 꾸민 내용을 통해 가락 짓기를 해보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연주하고 다시 감상한 후 감상곡과 비교를 해본 후 느낀점과 다른점, 공통점을 모듈별로 찾아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셋째, 산신의 전당에서의 이야기를 학생들이 듣고 단조가락이 주는 느낌이 곡의 이야기와 관련지어 보도록 구성한다. 페르 쿤트 이야기를 통하여 제재곡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해주고 감상하면서 단조가락의 다양한 느낌을 정리해 보는 순서를 가진다. 또한, 셈여림과 빠르기의 변화가 주는 음악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단조가락으로 구성된 주제리듬의 변화를 감지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음을 통해 리듬치기를 모듈별로 연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조로 이루어진 산신의 전당에서의 분위기와 가락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느낌의 표현 기회를 많이 주어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페르 쿤트 제 2모음곡 - ‘잉그리드의 탄식’

(1) 음악적 표현연구

화려한 기분을 자아냈던 혼례장면의 음악이 ‘잉그리드의 탄식’에서 단조로 바뀌어 격정적으로 연주된다. 이 주제는 약탈의 주제로 부르고 중간에 3/4박자 비탄의 선율이 잉그리드의 탄식을 묘사하며 차분히 울려 퍼지고, 다시 혼례장면의 음악이 나온다. 페르 쿤트는 고생해서 약탈한 신부 잉그리드에게 금방 싫증을 느끼고 다음 모험을 찾아 홀로 마왕이 사는 산속으로 들어간다.

이 곡은 사단조이며 페르 쿤트가 못된 행동으로 신부를 약탈하는 ‘1주제(악보 11)’와 상처 받은 잉그리드가 탄식하는 ‘2주제 (악보 12)’로 나뉘어 있다.

<악보 11> 신부를 약탈하는 1주제 선율



<악보 12> 잉그리드가 탄식하는 2주제 선율



<악보 12>처럼 쓰여진 대로 “doloroso, cantabile”로 ‘노래하듯이 애처롭게’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잉그리드가 탄식하는 ‘2주제(악보 12)’는 단조 선율에 깊은 한숨을 쉬는 느린 리듬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잉그리드는 슬픔을 참을 수 없어 통곡하는 절정의 부분으로 이어진다(악보 13).

<악보 13> 잉그리드가 통곡하는 절정 부분

잉그리드는 결혼식장에서 페르 퀴트에게 약탈당하고 다시 페르 퀴트에게 버려진 상태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잉그리드의 슬픔을 상상하게 한다.

<악보 13>을 보면 트럼펫과 팀파니가 셋잇단음표로 이어지는 반주를 담당하며 통곡을 하는 잉그리드의 모습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지도내용 및 방법

“잉그리드의 탄식”은 가드너의 지능 중에서 공간적 지능과 음악적 지능을 적용해 보았다. 여기서 공간적 지능은 학생들이 감상곡을 통해 여러 그림을 보면서 음악적 내용을 듣고 상상하도록 한다. 또한, 음악적 지능은 감상활동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이론적인 구성과 음악적인 활동들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잉그리드의 탄식”에서는 제재곡과 반대인 가사가 없는 4곡을 선정하여 들려주면서 어떤 그림과 연관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먼저,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위한 사진이나 그림 등 이미지를 보여 주면서 음악을 감상하도록 하게 한다. 학생들이 음악을 감상할 때에 곡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표 4).

<표 4> 학습지 예시

1. 다음 곡을 잘 듣고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그림을 선택하세요.					
2. 그 이유도 함께 적어보세요.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					

음악을 들으면서 제재곡에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게 한다. 단조와 급박한 리듬의 영향으로 파도가 치는 바다위의 상황과 어울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페르 퀴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학생들은 교사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음악만으로도 상상을 할 수 있다. 위의 학습지를 통해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곡의 느낌은 어떠한지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을 이야기해본다.

둘째, 제재곡과 반대인 가사가 없는 다른 4개의 곡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각 곡이 갖는 분위기와 앞에서 제시된 학습지의 그림들 중 어떤 그림과 어울리는지도 연결하여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것은 음악자체에 집중하여 리머가 강조하는 심미적인 체험을 요구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가사가 있는 곡들은 음악적 분위기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6) 페르 쾨트 제 2모음곡 - '페르쾨트의 귀향'

(1) 음악적 표현연구

제5막에 나오는 폭풍이 센 해안의 저녁이다. 페르 쾨트는 미국에서 금광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노경에 접어들어 고향에 돌아가 편히 지내려고 배에 오른다. 그러나 배는 노르웨이 해안에서 풍랑을 만나 난파하고, 그는 무일푼이 되어버린다. 여기서 천지를 뒤엎는 큰 폭풍우의 정경을 표현하였다. 6/8박자의 올림 바단조 곡으로 곡의 첫 부분은 앞으로의 일을 암시하게 하는 단조의 광파레로 시작한다(악보 14).

모든 관현악이 초반부터 비장한 음색으로 울려 퍼지며 중간에서 타악기들의 역할도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그는 “팀파니와 큰북, 베이스의 트레몰로는 굉장한 소음을 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타악기들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악보 14> 주제 선율 악보



(2) 지도내용 및 방법

“페르 퀴트의 귀향”은 가드너의 8가지 지능 중에서 자기 성찰적 지능과 인간 친화적 지능을 적용할 수 있다. “페르 퀴트의 귀향”은 단조의 붓점 리듬을 사용하여 곡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전조로 불안한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반음계적 하행 선율은 폭풍우와 큰 파도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뒤집혀질 것 같은 배의 상황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학생들에게 페르 퀴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음악을 감상하고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토론을 해본다. 만약, 이해를 못한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페르 퀴트의 귀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지도한다. 따라서, 젊었던 페르 퀴트에게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학생들이 상상해 볼 수 있고 교사가 간단하게 질문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곡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떤지, 곡의 흐름이 빠른지, 페르 퀴트의 이야기가 음악 속 흐름에 잘 어울리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들 어본 “페르 퀴트의 귀향”의 음악적 표현에 더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악보 15).

<악보 15> ‘나이 서른에 우린’ 악보15)

나이 서른에 우린

백창우 작사
백창우 작곡

제창
♩ = 72

나 이 서 른 에 우 린 어 디 에 있 - 을 까
어 느 곳 에 어 떤 얼굴 로 서 있 - 을 까
나 이 서 른 에 우 린 무 엇 을 사 랑 하 게 될 까
젊 은 날 의 눈 - 은 꿈 이 부 끄 럽 진 않 - 을 까
1. 우 리 들 의 노 래 와 - 우 리 들 의 숨 결 이
2. 우 리 들 의 만 남 과 - 우 리 들 의 약 속 이
나 이 서 른 엔 어 떤 - 뜻 - 을 지 닐 까 저 빈
나 이 서 른 엔 어 떤 - 뜻 - 을 지 닐 까 저 빈
거 친 - 들 냥 에 피 - 어 난 - 고 운 나 - 리 꽃 의 향 - 기 를 -
가 슴 - - 마 다 울 려 나 던 - 참 된 그 - 리 움 의 북 소 리 를 -
나 이 - - 서 른 에 우 린 - 기 억 할 수 있 을 까
나 이 - - 서 른 에 우 린 - 들 을 - 수 있 을 까

15) 고춘선 외(2009), 「고등학교 음악」,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p.24.

이 활동을 한 후에 “나이 서른에 우린”이란 참고곡을 통해 노래를 들려주고 가창을 한 후, 모듈별로 앉아서 교사가 나눠준 계획지인 ‘타임머신을 타고 간 30살의 내 모습’이란 주제를 통해 작성해본다(표 5).

<표 5> 계획지 예시

- 타임머신을 타고 간 30살의 내 모습 -

학년 / 반 / 이름	이 수 민
직업	소방원
성격	의리가 있다
결혼 유/무	유
직업에 만족하는가	만족한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걱정되지만 그만큼 열심히 하면서 가족들과도 더 시간을 보내려 한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내가 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공무원에 관한 지식습득 및 준비하기. - 운동하기(체력단련을 위해서 꾸준한 헬스,수영) - 긴생머리의 청순한 여인과 결혼하기 - 성품을 다듬는다.(배려심을 높이고 복지활동도 한다.)

이 계획지는 학생들에게 상상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며 작성하다보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또한,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겪는 여러 변화들에 대해 방황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멋진 미래의 내 모습을 꿈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좋은 수업시간이 될 것이다.

이 계획지를 통해 학생들이 그림이나 글짓기 등으로 가장 자신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표현하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다양하게 자

신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음악교과에서 강조하는 무한한 잠재력과 창의성을 학생들에게 길러주는 것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7) 페르 퀴트 제 2모음곡 - '솔베이그의 노래'

(1) 음악적 표현연구

“솔베이그의 노래”의 멜로디는 유명하다. 꿈을 그리면서 헤메이던 몽상가 페르 퀴트는 기쁨과 슬픔이 얽힌 오랜 여정을 마치고 지치고 늙은 몸을 이끌고 고향의 오막살이로 돌아오게 된다. 백발이 된 솔베이그의 무릎에 엎드려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곡은 전주가 현악기로 시작되며 현에 약음기를 달고 연주하여 섬세함을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이 전주는 마지막에 다시 후주에서 등장하는데 ‘전주부분과 후주부분 (악보 16)’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6> 전주부분과 후주부분 악보



<악보 16>에 전주부분은 곡을 시작하기 때문에 계이름인 ‘시’와 ‘미’로 가락을 올려주고 후주부분은 곡을 끝내기 위해 ‘미’와 ‘라’로 끝나는 느낌을 주었다. 전주가 끝나고 하프가 시작되는데 이 하프소리는 솔베이그가 베를을 짜는 소리를 상징화해서 나타내고 있다.

<악보 17> 1주제와 2주제 악보



1주제는 4/4박자로 고요히 진행되며, 평생 동안 페르 권트를 기다린 솔베이그의 외로움과 슬픔을 표현한다. 2주제는 3/4박자로 경쾌하게 등장하고, 1주제의 선율과는 달리 2주제는 조금 빠르고 무곡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그리그는 “솔베이그의 노래”에서 음악이 연주될 때에, 이 노래가 솔베이그의 모든 것을 상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2) 지도내용 및 방법

“솔베이그의 노래”는 가드너의 8가지 지능 중에서 언어적 지능과 자연 친화적 지능을 적용하여 활동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언어적 지능은 감상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여 미리 과제를 주고 난 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각 모듈별로 해온 과제를 통해 토론수업을 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친화

적 지능은 감상곡과 관련된 계절과 동물, 식물 등의 여러 이미지 자료를 통해서 직접 음악과 연관 지을 수 있게 되며 특징을 탐구하고 파악하여 음악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전에 미리 과제를 주고 모듈별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영상’을 찍어 오는 것이다. 이 곡은 유명하고 자주 들어봤던 곡으로 학생들이 감상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첫째, “솔베이그의 노래”라는 제재곡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미리 과제를 준다.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이나 CF라는 다양한 장르 속에서 이 음악을 모듈별로 찾아오는 것이다. 학생들이 찾아온 장르를 가지고 모듈별로 ‘영상’을 틀고 음악과 함께 감상하면서 적절히 잘 활용했는지, 또 음악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찾아보고 주제로 정해서 토론수업을 하는 것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음악의 생활화’를 기존 7차 교육과정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음악들을 과제로 해오는 과정도 ‘음악의 생활화’ 영역에 해당된다. 음악수업에서도 토론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언어적 지능의 발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

둘째, 교사는 “솔베이그의 노래” 독창으로 부르는 가사를 악보와 함께 들려주고, 학생들이 이 참고곡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과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한다(악보 18). 또한, 학생들은 솔베이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하면서 ‘솔베이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갖는다.

<악보 18> ‘솔베이그의 노래’ 악보16)

솔베이그의 노래

Un poco andante

1. 그 겨 울이지 나또 봄-은가고 또- 봄-은가고- - - 그
2. 그 풍 성한복 을참 많-이받고 참- 많-이받고- - - 오

여름날이 가 먼디 세월이 간다 세- 월-이 간다- - - 아!
우리하나님 늘- 보호하소서 늘- 보호하소서- - - 쓸

cresc.

그러나그대 는내 임 일-세 내 임-일-세 내 정-성을 다 하여 늘
쓸-하게 홀 로늘 고 대-함 그 몇-해인가 아! 나 는그리워-라 널

pp

고대하노라 늘 고대하노라 - } 아
찾아가노라 널 찾아가노라 - }

Allegro con moto

아

아 아 아

Tempo 1

pp

아 아

16) 윤경미 외(2009), 「고등학교 음악」, 서울 : 현대음악출판사, p.124~125.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페르 퀴트」 1, 2모음곡을 통해 7차시로 나누어 각 곡의 음악적인 표현들을 연구하고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지도내용 및 방법을 통해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방안 연구를 모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악수업을 개선하고 학습자들의 수업효과를 증진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이다. 이 다중지능을 적용한 음악수업에서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대한 기대도 크게 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포괄적 음악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핵심이 있고, 그 방법으로 개념적, 통합적, 경험적, 창의적인 접근 4가지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작곡가나 연주자, 감상자, 학자로서의 역할을 그 수준에 맞게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음악성으로 이 음악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역할을 통한 포괄적인 음악적 경험을 강조하는 것으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과 연관된다.

음악 감상지도의 필요성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감상지도를 살펴본 결과 음악 감상교육은 모든 세부영역에서 걸쳐 나타나는 포괄적인 활동으로 활동영역의 음악 감상하기는 음악의 표현 및 요소와 음현상에 대한 감지력, 민감한 반응력을 길러 궁극적으로 심미적 감수성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감상음악 학습 활동에서는 다중지능이론인 8가지 지능을 활용한 교수 활동을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감상 제재곡의 지도계획에서는 학생들에게 좀 더 쉽

게 다가갈 수 있는 흥미로운 표제음악 중에서 이야기가 있는 음악인 모음곡인 「페르 권트」 1, 2모음곡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점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악곡의 성격과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며 듣는다.”는 교육과정의 감상영역부분에 있는 내용으로 악곡의 성격에 따른 감상활동은 중요하다. 따라서 각곡의 성격에 따라 8가지 지능을 적용시켜 지도계획을 작성하였다.

수업지도안에서는 「페르 권트」 1, 2모음곡을 통해 7차시로 나누어 각 곡의 음악적인 표현들을 연구하고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지도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총 8곡을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방안으로 연구하였다.

「페르 권트」 1모음곡의 ‘아침의 기분’은 공간적 지능과 자연 친화적 지능을, ‘오제의 죽음’은 인간 친화적 지능과 자기성찰적 지능을, 1, 2모음곡의 ‘아니트라’의 춤’과 ‘아라비아의 춤’에서는 신체 운동적 지능과 논리 수학적 지능을, ‘산신의 전당에서’는 음악적 지능과 언어적 지능을, 2모음곡의 ‘잉그리드의 탄식’은 공간적 지능과 음악적 지능을, ‘페르 권트의 귀향’에서는 자기 성찰적 지능과 인간 친화적 지능을, ‘솔베이그의 노래’에서는 언어적 지능과 자연 친화적 지능을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교사들이 더 다양하고 학습자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업을 연구해본다면 수업에서의 호응도는 높아질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악곡활동을 통해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을 시도한다면 단순한 감상을 위한 음악교육이 아닌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음악 감상 교육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포괄적 음악교육의 지도방안이 현직 교사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 권덕원·석문주·최은식·함희주(2008).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 박효정 외(2006). 다중지능이론과 수업. 양서원
- 안영진 외(2004). 다중지능이론에 의한 아동의 다양한 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창지사
- 이옥형 외(2005). 교육심리학. 집문당
-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 주영흠 외(2006). 신세대를 위한 교육학개론. 학지사
- 민디 L. 외(2008). 다중지능 학교사례. 교문사

- 학술지 -

- 김미숙(1996). 중등학교의 음악감상. 음악교육연구. vol.15 No.1
- 김성지(2007). 표제음악의 감상지도. 한국예술교육학회. 5권 2호

- 기타자료 -

- 교육인적자원부(2007). 음악과 교육과정 2007 -79호 [별책12]
- 교육인적자원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 학위논문 -

- 김명희. “다중지능이론을 활용한 동시감상 수업 효과 분석”. 석사학위논문.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김인영.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음악과 교수학습 지도방안 연구 -초등학교 4,5,6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김희라. “무대의상을 통한 어린이 음악극의 이해연구 - 「피터와 늑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박지희.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중학교 감상 수업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이지우. “고등학교 미술교육에서 아트프로필과 프로젝트 접근법의 활용방안 :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정장미.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오페라 마술피리의 감상 지도안 개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한미숙. “다중지능이론을 활용한 즐거운 생활에서의 음악수업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교과서 -

- 고춘선·홍종건(2009). 「고등학교 음악」,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윤경미·문진(2009). 「고등학교 음악」, 서울 : 현대음악출판사.

ABSTRACT

A study on the Guidelines for Comprehensive musicianship
applying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by Howard
Gardner.

- Focus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

Kim, So Min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guidelines of comprehensive musicianship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who want to experience the various musical activities applying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by Howard Gardner.

In this study, It has introduced the theory of Gardner's multiple intelligence and indicated the effective guidelines applying every 2 types of intelligence among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to each music for 7 times lessons through Peer Gynt Suite no. 1, 2 as the theme music.

At the teaching plan of the theme music applying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the music of Peer Gynt is selected for an easy

approach to the students. At the lesson program, Peer Gynt Suite No. 1, 2 is divided for 7 times lesson and the musical expressions of each song(tune) is studied. Total 8 songs (tunes) have been studied as the guidelines that can be used in the actual lesson.

It has applied “Spatial intelligence and Naturalist Intelligence” to “Morning Mood” of Peer Gynt Suite No.1 , “Interpersonal Intelligence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to “Ase’s death”, “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and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to “Anitra’s Dance and Arabian Dance” of Suite No. 1, 2., , “Musical Intelligence and Linguistic Intelligence” to “In the Hall of the Mountain King”, “Spatial Intelligence and Musical Intelligence” to “Ingrid’s Lament” of Suite No.2. , “Interpersonal Intelligence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to “Peer Gynt’s Homecoming” and “Linguistic Intelligence and Naturalist Intelligence” to “Solveig’s song”

It's hope this guideline of the comprehensive musical education applying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by Gardner can be helpful for the present teachers who are concerned about the effective musical education and the better approach.

- 부 록 -

1. 그리그 (Edvard Grieg , 1843-1907) 음악작품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며 피아니스트인 그리그(Edvard Grieg)는 ‘북유럽의 쇼팽’ 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피아노 연주와 작곡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는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태어나 여섯 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다. 1853년에 라이프치히 음악원에 들어가 피아노와 작곡을 공부했고, 1862년에 노르웨이로 다시 돌아왔다. 이듬해에는 코펜하겐으로 가서 피아니스트로 일을 시작했다. 노르웨이 문화는 덴마크 문화의 그늘아래 있었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그는 노르웨이 민속음악의 잠재력을 점점 깨닫게 되어 전통음악에 바탕을 둔 작품들을 써서 노르웨이 민족주의를 고취시켜 나갔다.

1867년에는 첫 번째 피아노 소품집인 「서정적 소곡집」(1867)을 출판했는데 8개의 분위기가 다른 곡들이 들어있다.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9개의 소품집을 더 내놓았고 각 소품집에는 아름답고 개성이 뚜렷한 6곡에서 8곡까지의 작품이 들어있다. 그 다음 해인 1868년에 그리그는 「피아노 협주곡 A단조」을 완성했는데 이 작품은 매우 어려운 기교를 요하는 곡으로 지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 중 하나이다.

입센이 「페르 키타」라는 연극 작품에 쓸 음악을 의뢰하자, 그리그는 같은 제목의 모음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1876년의 초연은 대성공이었고 1884년에 그리그는 노르웨이의 철학자이자 극작가인 루드비그 홀베르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곡을 의뢰받았다. 그 결과 탄생한 「홀베르그의 모음곡」(1884)은 피아노를 위한 5악장의 작품으로 18세기 댄스 모음곡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는 이 작품을 현악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했고 매우 서정적이고 우아한 멜로디로 인해 편곡된

작품이 오늘날 더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그의 오케스트라 곡은 악기의 색조를 강조하고 리듬을 두드러지게 하여 국민악파다운 수법을 보여주며 나뉠대로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소나타나 협주곡 등에서는 주제의 전개방법이나, 구성상의 의지면에서 다소 연약성을 느끼게 하는 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의식에 눈 뜬 수준이 높은 음악의 뿌리를 견고하게 심은 선각자로서의 그리그 위치는 음악사상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위치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본령은 몇 개의 가곡과 10집으로 된 피아노곡 「서정 소곡집 (Lyric pieces)」 (1901)에서 볼 수 있는 서정적인 섬세함이 보인다 하더라도 노르웨이 국민음악의 힘찬 추진자로서의 그의 업적은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그는 교향곡이나 오페라와 같은 대규모 작품은 작곡하지 않았지만 소품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듣기 쉬우면서도 개성적이고 노르웨이적 정서가 배어 있는 그의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 헨릭 입센(Henrik Ibsen , 1828~1906)의 희곡 「페르 키타」

노르웨이 극작가인 입센은 부유한 상인 집안에 태어났으나 8세에 집안이 파산되어 극빈하게 자라면서 인간불신과 사회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며 반항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는 우울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인간 정신의 반항’을 목표로 삼고 급진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해방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1867년에 쓰여진 입센의 「페르 키타」는 고국인 노르웨이의 전설에서 테마를 얻은 이야기로 전체 5막 3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경은 노르웨이의 산간진대에서 아라비아의 대사막을 거쳐 유럽과 아시아 양 대륙을 거치면서 끝없이 전개된다. 100여 명에 가까운 등장인물 중에는 신령과 요정들이 자유롭게 인간사회를 드나들게 함으로써,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여 기괴함과 흥미를 이끌어 내는 작품이다.

이 작품이 세상에 발표되었을 때는, 주인공인 페르 킨트의 성격상 특징이 논란을 일으켰다. 즉, 페르 킨트는 재치가 있고 힘이 센 인물이긴 하지만 의지가 박약하고 정열이 부족하며, 일시적인 기분에 좌우되어 자신이나 남을 기만하고도 후회하지 않는 무책임한 성격의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 성격의 특징이 노르웨이인들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폭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입센은 주인공인 페르 킨트가 입센 자신을 모델로 한 부분도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 페르 킨트는 공상에 잘 빠지고, 조금 삐딱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또한, 「페르 킨트」에는 트롤(troll)이라는 우리나라의 도깨비와 유사한 요정이 등장한다. 트롤은 노르웨이 시골지역에서 많이 알려진 도깨비로 영국의 민간 전승설화에 나오는 갈색을 띤 꼬마요정과 비슷하다.

「페르 킨트」는 처음부터 무대를 염두하고 쓰인 작품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입센도 이 희극에 대해 자유로운 환상을 펼칠 수 있는 낭송에는 어울리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구현해야 하는 무대 상연을 해야 한다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바뀌게 되어, 1874년 초에는 무대상연을 위한 본격적인 계획을 세운다. 그 당시에 드레스덴에 머물고 있던 입센은 로마에서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작곡가 그리그에게 한통의 편지를 보내게 된다. 입센은 무대상연에 대한 어려움을 음악적인 표현을 강조하여 극복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는 편지에 음악이 극의 상연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세부적인 제안들도 적었다. 그리그는 입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페르 킨트」를 작곡하게 되었다.